

「성장전략 TF」 1차 회의 부총리 모두말씀

-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입니다.
- 지금부터 「성장전략 TF」 1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 -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
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,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님,
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,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님,
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,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님,
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경제성장수석께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
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습니다.
 - 우리 기업들이 일본과 EU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
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
- 그러나,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.
 -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늘 소통하면서
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.
 - 또한, 조선을 포함한 3,500억불 규모의 「전략산업 협력 패키지」가
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도록
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- 이제 보다 근본적인 경제의 성장에도 집중해야 합니다.
 -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
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.
 - 이에 비상경제점검 TF를 「성장전략 TF」로 전환하고
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
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.

- 특히, 기업을 한국경제 ‘모든 것의 중심’에 두고(Everything for Business)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습니다.
 - 정부와 기업,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되어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‘초혁신기술 아이템’을 선정하고,
 -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, 세제, 금융, 인력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- 먼저, **Physical AI 1등**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.
 -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, 정부,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 - 또한,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-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.
 -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,
 -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.
 -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겠습니다.
 -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여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- 정부는 이와 같이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찾아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‘새정부 경제성장전략’과 예산안에 담아 8월중 발표할 예정입니다.
 - 기업과 경제단체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.
 - 주무부처와 관계부처가 협업하고 기재부가 뒷받침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
 - 우리 대한민국은 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해야 합니다.